나란다축제, '다시 내딛는 불교중흥'

11월 28일 동국대 일원서 개최
청소년·청년 중심 주체성 강화
진로엑스포·문화예술 경연 등
상월결사 순례체험도 11월 예정

박지운 기자 vjw33@hyunbul.com



나란다축제 운영위원회는 9월 29일 서울 동국대서 간담회를 열고 11월 28일 개최하는 제18회 나란다축제의 주요 행사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조직 개편과 축제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지난해 중단 위기로 축소 진행됐던 나란다축제가 청소년과 대학생 불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불교문화축제로 다시 도약한다. 교리와 진로, 문화예술, 수행체험을 한자리에 연결해 미래세대가 불교를 배우고 즐기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나란다축제 운영위원회(운영위원장 담화 스님)는 9월 29일 서울 동국대서 간담회를 열고, 11월 28일 서울 동국대 일원에서 개최하는 '제18회 나란다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조직 개편과 축제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조계종과 동국대가 주최하고 불교교육연합회와 상월결사가 주관, 군종특별교구·대학생불교연합회·동련·불교음악원·전국교법사단·좋은벗·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가 공동주관하며 뜻을 모았다.

나란다축제는 올해 '다시 내딛는 불교중흥의 한 걸음, 부처님 법 전합시다!'를 기치로 내걸었다. 특히 청소년을 축제의 주체로 세우고 대학생 불자들의 참여를 확대해 미래세대 불교문화축제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생 불자들은 10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행사 운영과 학생 지도를 맡는다.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학생기획위원단도 운영한다. 학생들은 '내 손으로 빚은 꿈'을 주제로 기획회의와 워크숍에 참여한다.

전통문화체험 '내가 K다'에서는 △불교교리경시대회 △도전! 범종을 울려라 △청소년 전통문화 한마당 △상월선원 안거체험 '남산에서 인도를 걷다' 등이 진행된다.

대표 프로그램인 불교교리경시대회는 중·고등학생들이 불교의 기본 교리를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운영한다. 예년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하면서 교재와 문제은행을 별도로 제작해 사전 학습을 돕는다. 초등학생 대상 불교퀴즈대회 '도전! 범종을 울려라'는 사찰 어린이법회 등을 중심으로 예선을 거쳐 본선을 치른다.

'상월선원 천막결사 안거체험'은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다. 28일 오전에는 동국대학교 팔정도에서 출발해 남산 둘레길 약 2km를 걷는 '남산에서 인도를 걷다' 순례체험이 진행된다.

'청소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진학·진로 엑스포 꿈의 지도' 프로그램에서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학·진로 상담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국대 입학도우미 'DREAMER'가 진학 상담과 집중 멘토링을 제공해 진학 설계를 돕는다.

문화예술 무대도 넓어진다. '전통과 현대의 어울림마당' 프로그램에서는 K-Dance 경연대회, 해봉 전통예술 국악 경연대회, 어울림마당 등이 펼쳐진다. 특히 해봉 전통예술 국악 경연대회는 중·고등부를 신설해 기존 대학생·대학원생에서 청소년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단됐던 '군장병 부문 불교교리경시대회'도 다시 열린다. 11월 29일 군부대별로 진행, 청년의 참여율을 높힐 계획이다.

삼보사찰 순례도 11월 중에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순례는 2021년 한국불교 중흥의 원력으로 진행된 '삼보사찰 천리순례'의 길을 다시 걸으며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유훈을 잇기 위해 기획됐다. 대학생과 참가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기자칼럼

제19대 중앙종회가 풀어야 할 과제

10월 15일 조계종 제19대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전국 교구본사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다수 교구본사에서 선출 정수를 넘어서는 후보가 등록해 경쟁도 치열하다. 하지만 선거의 승패보다 중요한 것은 새롭게 구성될 중앙종회가 종단 안팎의 현안을 어떻게 법과 제도로 풀어내느냐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종헌과 종법의 충돌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는 일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종사·명사 법계 품수 절차를 둘러싼 문제다.

지난해 11월 제236회 중앙종회 정기회는 대종사·명사 법계 특별전형 절차를 자동품수 방식으로 바꾸는 법계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그러나 종헌 제28조는 원로회의에 '2급 이상의 법계 심의권'을 부여하고 있어 법계법 개정안과 종헌의 불일치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은 올해 6월 법규위원회에 해당 법령의 종헌 위배 여부를 묻는 심판을 청구했다. 법규위원회는 7월 회의에서 종헌 위배 가능성에 공감하면서도 최종 판단은 유보했다. 대신 중앙종회가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관계 기관 간 추가 논의를 통해 해법을 찾도록 권고했다.

결국 공은 다시 중앙종회로 넘어왔다. 19대 중앙종회는 법계 품수를 둘러싼 불필요한 혼선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 법의 빈틈과 모순을 찾아 바로잡는 것, 그것이 입법기관인 중앙종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다.

비구니 스님의 호계위원 참여를 위한 종헌 개정 역시 과제로 남아 있다. 관련 개정안은 2013년부터 꾸준히 논의돼 왔지만, 제18대 중앙종회에서 두 차례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지고도 의결되지 못했다.

비구니 스님의 참종권 확대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문제인 동시에 비구니 승가의 고유한 수행 특성과 역량을 종단 운영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제는 제도화를 위한 현실적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이 밖에도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해 선언을 규정으로, 요구를 제도로 바꿔야 한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일수록 원칙을 분명히 하고, 낡은 규정은 과감히 손질해야 한다.

81명의 중앙종회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의 열기를 한국불교의 변화를 위한 동력으로 바꾸는 책임이 새 중앙종회에 있다.



김내영 편집국 차장

밀교 의례 복원 넘어 현대적 활용 모색

'밀교의례의 설행·전개' 학술대회
공양차제·만다라·관정 등 주제


진각종 밀교의례사업단은 9월 29일 서울 진각종 총인원 4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진각종 밀교의례사업단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 밀교의례의 원형을 살피는 데서 나아가 실제 설행을 위한 복원 가능성과 현대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의 장이 마련됐다.

진각종 밀교의례사업단은 9월 29일 서울 진각종 총인원 대강당에서 '2026년 진각종 밀교의례사업단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밀교의례의 설행과 전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공양차제, 만다라 작법, 관정, 호마, 불복장 등 밀교의례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를 집중 조명하며 한국 밀교의례를 어떻게 연구·복원하고 실제 의례로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밀교의례의 구체적인 작법과 수행 구조, 전승 과정을 함께 살핀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문헌에 기록된 의례의 원형을 확인하는 한편, 밀교적 세계관과 수행 의미를 분석해 향후 전통 의례의 복원과 실제 설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구 기반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위덕대 혜안화 전수는 '밀교와 현교의 공양차제 비교 연구'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현교와 밀교의 공양 의례를 비교하며 밀교 공양차제의 특징과 수행적 의미를 살폈다.

방정란 경상국립대 인문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는 '인도후기밀교 의례집의 만달라 작법 연구'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만다라의 조성과 의례적 활용 과정을 분석하고 문헌 속 만다라 작법을 실제 의례의 관점에서 복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어 위덕대 불교문화학과 교수 성제 정사는 '혜과아사리와 밀교관정'을 주제로 발표했다.

'밀교의 티베트 호마의례에 대하여'를 발표한 박영빈 밀교의례사업단 전임 연구원은 티베트 밀교의 호마의례를 중심으로 의례의 구성과 실제 설행 과정을 살피고 외적인 화염과 행자의 내면 관상이 결합하는 호마의 수행적 의미를 설명했다.

강대현 위덕대 밀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는 '불탑, 불상, 불복장, 그리고 만다라'를 주제로 불복장과 만다라의 관계를 조명했다.

임은호 기자



청와대 직원들, 청년들에 '밥心' 나눔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은 9월 22일 서울 연화사(주지 묘장 스님)에서 '청와대 자원봉사단 · 불자회와 함께하는 청년밥心'을 진행했다. 청와대 불자회(회장 강건작)와 청와대 자원봉사단(단장 전성환)은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정성껏 마련한 사찰식 명절음식과 송편을 직접 배식하고 함께 공양했다.

박지운 기자



생명나눔-별내동, 생명존중 문화 확산 MOU

생명나눔실천본부는 9월 28일 별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나눔 ·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별내, 나눔으로 물들다' 프로젝트를 주제로 한 이번 협약은 민 · 관 협력을 통해 별내동 지역의 복지 수요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민간 복지 자원을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은호 기자

나눔의집 신임 대표이사에 원행 스님

9월 30일, 임시이사회서 선출
"할머니 추모에 최선 다하겠다"



나눔의집 신임 대표이사에 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진안 금당사 회주·사진)이 선출됐다. 임기는 2029년 9월 30일까지 3년간이다.

나눔의집은 9월 30일 경기 광주 나눔의집 1층 교육관에서 '2026년 제3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새 대표이사로 선출된 원행 스님은 "위안부 문제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피해자 할머니들을 추모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면서 '인권'의 가치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01년부터 18년간 나눔의집 상임이사로 활동하며 할머님들과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린 스님은 "할머니들은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반복돼선 안 되고, 고통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꼭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셨다"며 "앞으로 함께 살아갈 아이들이 우리의 역사를 잘 알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하는 데 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표이사 사의를 표한 세영 스님은 "35년 전 월주 스님이 나눔의집을 설립한 이후 많은 스님들이 발전을 위해 애써주셨기에 저 또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원행 스님께서는 총무원장도 역임하신 데 더해 유물 관련 전문 역량도 두루 갖추고 있다"며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추모의 뜻을 잇는 것은 물론 역사를 기록해 나가는 박물관으로서의 기능도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응원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영화 '귀향' 재개봉과 연계한 일본군'위안부' 추모사업과 추모비 설치 관련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건' 안건도 처리했다.

이현희 기자

올해의 포교사 강원지역단 강릉총괄 교정교화팀 **최상규**

묵묵히 20여 년 교정교화·지역봉사

2026 조계종 총무원장상 수상
43년 교직생활하며 포교사 활동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청소하고, 반찬과 연탄을 나누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온 최상규(77) 조계종 포교사단 포교사. 20여 년 넘게 재소자들을 만나 교정교화 활동을 이어오며 포교에도 힘써온 그가 올해 조계종 총무원장상을 받았다.

9월 12~13일 장성 백양사에서 열린 '제22회 팔관재계수계법회'에서 총무원장상을 수상한 최 포교사는 43년간 교직에 몸담으면서 2005년 제10기 포교사를 품수, 본격적인 포교활동을 펼쳐왔다. 강릉군포교팀장과 강릉총괄팀장을 거쳐 제7대 강원지역단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강원지역단 강릉총괄 교정교화팀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가 오랜 기간 이어온 활동 가운데 특히 비중을 둔 분야는 교정교화다. 최 포교사는 재소자들을 만날 때 경전을 설명하기보다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서로의 경험과 어려움을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왔다.

교정교화 활동과 함께 지역사회 봉사도 꾸준히 이어왔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장애인 가정에서 화장실 청소를 했던 날이다. 봉사를 마치고 돌아가려는 순간 한 장애인이 그의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다. 그 한마디에 최 포교사는 "봉사는 거창한 일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봉사와 포교를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된 데에는 어린시절의 경험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전쟁으로 부모를 일찍 여읜 그는 조부모의 손에 성장했다. 월정사 신도였던 할머니는 손주가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며 부처님께 기도했고, 생활 속에서 불살생을 실천했다.

"할머니께서 평소 좋아하시던 고기까지 끊으면서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저도 할머니를 따라 자연스럽게 살생을 멀리하게 됐습니다. 냇물에서 고기를 잡는 것도 하지 않았죠."

어린 시절에는 할머니를 따라 사찰을 찾는 정도였지만, 청년이 되고 교직생활을 시작하면서 다시 불교를 가까이하게 됐다. 사회생활을 하며 마주한 여러 문제를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삶의 기준을 세우고자 했다.

최 포교사가 평소 마음에 새기는 경구는 〈금강경〉의 모든 유위법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그림자, 이슬과 번개처럼 덧없다는 가르침이다. 이 구절을 삶의 지침으로 삼아 현재의 일에 충실하되 집착은 내려놓고, 자신을 낮추며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그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흘러가는 지금 이 순간도 감사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봉사와 포교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는 총무원장상 수상이 그간 자신의 포교활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상을 받았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박지운 기자